

교오토의 대순교를 생각하는 새로운 복음 선교」 파트 2 현대의 순교 「환혈류」를 살아

교오토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요시나오

1. 「베드로 키베와 187 순교자」 열복의 해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도 교오토 교구의 모든 신자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주교의 모토) 공동 선교 사목을 추진해 갑시다.

작년 6월 1일, 교황청 열성성은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인가를 얻고, 「베드로 키베와 187 순교자」의 열복을 승인하고, 9월에는 열복식이 올해 11월 24일(월요일) 나가사키에서 행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교구의 올해의 테마를 「교오토의 대순교를 생각하는 새로운 복음 선교」라고 해(파트 2), 「일상으로부터 미사를 산다」 교오토 교구가, 열복 되는 순교자의 신앙을 모범으로 하고, 「새로운 복음 선교」에 임할 결의를 새로이 다짐하고 싶습니다.

2. 「새로운 복음 선교」를 위한 부회제의 충실

교오토 교구는, 2001년에 전 56소교구에 「공동 선교 사목」을 도입한 이래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햇수로 5년을 걸쳐 임한 「소교구 평의회의 규약 만들기」는 작년말에 마쳤습니다.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않고 보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복음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의 운영과 활동을 공동 선교 사목의 정신으로 실행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막 시작한 부회제를 어떻게 궤도에 올려 갈까입니다. 부회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두가 교회의 활동을 담당하고 복음을 선교해 나가자」라고 하는 목표를 확실히 파악하고, 부회제가 정착하도록 각 교회에서 노력해 나갑시다.

3. 「교오토의 대순교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년」

저는 작년 「교오토의 대순교」의 기념일인 10월 6일부터 금년 열복식(11월 24일)까지의 기간을, 「교오토의 대순교를 생각해, 함께 기도하는 일년」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교오토의 대순교」의 열복결정을 감사하는 것과 함께, 「베드로 키베와 187 순교자」, 특히 「교오토의 대순교」에 대한 역사를 배워서, 당시의 크리스찬의 신앙과 순교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현대의 순교」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순교자의 배움을 위해서, 「교오토의 대순교 1619년 10월 6일」(유우키료오, 일본 26 성인 기념관 발행, 2007년 제3판)과 「베드로 키베와 187 순교자」(가톨릭 중앙 협의회, 순교자열복조사위원회, 2007년)의 2권을 교구의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자, 잘 읽으시고, 각각의 순교자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배워, 그들의 삶의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또, 교구에서는 「교오토의 대순교」 열복기념 사업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구 전체가 「교오토의 대순교」의 열복을 가치가 있게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념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으로에게 특별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또, 각지구 협의회·블록·소교구등에서도,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활동해 주세요.

4. 현대의 순교 「환혈류」를 산다.

박해시대, 라틴어의 「순교」가 「환혈류(まるちる)」라고 하는 글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환혈류」에는, 순교자의 신앙과 심정이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런 박해를 받고 천국을 오로지 희망해 모든것을 참아낸 순교자들은, 스스로의 모든 것(통째로)을 바치고 생명을 걸고(피를 흘리고) 신앙을 끝내 지켜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박해는, 권력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보다도 더 교묘하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서서히 배제하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다면, 그것으로 좋지 않은가」라는 주관 주의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만 않으면,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도덕적 상대주의, 한층 더 「이 세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어」라고 하는 허무주의(허무감)의 형태를 한 가치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神)부재의 삶으로 유혹해 갑니다. 이러한 현대의 유혹은 교회의 외부로부터보다 신자들의 내면로부터 오고, 어느새인가 그리스도신자 자신이 요구하는 구원 그 자체가 세속화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타입의 박해입니다. 이 세속의 시대의 「정신의 박해」라고 하는 것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바로 그 크리스찬의 「환혈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5. 「환혈류」의 마음·결손

순교란, 무서운 고문에 참아 죽었다고 하는것에만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도라면 누구든지 「만일의 경우, 자신은 순교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은, 자신은 약하기 때문에 순교는 결코 할 수 없다고 하겠지요. 확실히 그것은 정직합니다만, 그것으론 순교자를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않은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은 순교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공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해에 직면해 마지막에 순교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이 강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느님에의 신뢰와 은혜에 의해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께 부탁하는 것, 이 하느님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었을때 순교는 인간의 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6. 선교를 위한 봉헌으로서의 순교

순교자의 원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하지 않고, 다만 오로지 사랑하는 타인을 구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궁극의 종착점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어 안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선교를 위한 봉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역사에 있어서의 수많은 순교도, 이 선교를 위한 봉헌의 한 형태이며, 순교자들은 살해당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신의 신앙의 힘이나 용감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 한 것은 아니고,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순교」에는 3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1은, 「예수·그리스도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증거의 삶의 방법은 뭐든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희망을 거는 사랑의 삶입니다. 제 2는, 신앙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항상 돌아 봅니다. 그리고 제 3은 「숨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다물고 자신만 믿고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신앙의 은혜로부터 증거하는 사명을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7.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린다

성아우구스티누스는 순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을 매입한 대가는 한 명의 죽음입니다. 이 한 명의 죽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매입했는지요. 만약, 그 죽음이 없었으면, 한 알의 보리가 많은 결실을 볼 수는 없었겠지요. 순교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느님에게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느님에게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 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들어맞습니다. 사람은 각각 다른 방법이언정,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느님에게로 돌려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교에는 「죽는 순교」와 「죽지 않는 순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나 신에게 바치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자신의 것이면서도, 그 처음도 마지막도 자기 자유대로 할수없고,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구원되고 그 인생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8. 하느님과의 약속을 산다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신의 사랑에 응한다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신의 사랑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전하게 계시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신자는, 인생이 사람의 의사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숙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워 따르는 인생을 「신이 인간에게 주는 끝없는 사랑에 얼마나 응해 사는가」라고 하는 시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신에게 사랑받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순교자의 그 죽음으로 표현된 「삶의 방법」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불가해하고 신비입니다.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휘말리고, 사는 보람은 커녕 사는 힘도 의미도 없어, 절망에 빠져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심각하지 않아도, 왜 내가 이런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는 불행한가, 왜 나는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라고 자신이 분열해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야말로 우리는 세례의 약속대로, 신의 사랑과 힘에 신뢰해, 거기에 응할 약속을 상기하게됩니다.

9. 그리스도를 따르는 용기

고 교황 요한·바오로 2 세가 만년 고령이 되어 병상중에서 어느 기자로부터 은퇴의 의사를 질문받았을때, 「그리스도는 십자가로부터 내리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황님은 신에게 바친 인생을, 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신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희망하며, 동경해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스승인 그리스도의 삶과 그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하며,

교황님과 같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용기와 겸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의 봉헌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하느님으로부터의 초대에 어떻게 응할까?. 가능한 한 잘 응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응하지 못할까?, 전혀 응하지 못할까?. 신앙은 어떤 의미로 자신의 인생을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10. 영원의 생명을 목표로 해 「일상」을 산다

당시의 교오토의 크리스찬들은, 그 기독교 교회라고 불리던 성당에서 어떤 생각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순교자들은,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산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고생과 한탄과 잠시동안의 기쁨으로 가득한 생활속에서도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교환해서 살고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봉헌은, 매일의 생활에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생활의 어려움, 나날의 노동, 이웃에게의 봉사에 담긴 「일상」에서의 신앙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오로는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로마 12·1). 그리스도신자의 봉헌은 매일의 생활 전체입니다. 이것이 「일상으로부터 미사를 산다」라고 하는 테마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사는 어느 의미로 「일상」을 넘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 구원의 때를 미리 사는 장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순교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영원의 생명을 목표로 하고 일상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에 직면했을 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궁극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 복음적 결단

이 세상의 부도 명성도 출세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복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이나 인권, 환경,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나 복음적인 삶의 방법과 대립할 경우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곤란해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학대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처분해서, 누리고 있는 편한 생활도 내던지고,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선택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할 기회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풍부하게 사는지, 허술하게 취급할지, 그 유혹은 모든 선택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와 회심으로 그것을 길러, 만일의 경우에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할지, 거부할지, 진짜 박해는 확실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카모가와와 로크쥬가와라에서 27 개의 십자가에 늘어선 52 명의 순교자들은, 하느님께의 사랑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한 결단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에의 영광의 길을 올라섰습니다.

12. 「사도 성바오로의 해」를 맞이해서

교황 베네딕도 16 세는 사도 성바오로의 탄생 2000 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8 년 6 월 29 일 「성베드로·성바오로의축일」부터 2009 년 동축일까지를 「사도 성바오로의 해」라고 제정하였습니다(주 1). 바오로는 「하느님의 베품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페트로 키베와 187 순교자」의 열복을 기념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의 은혜를 낭비하는 일 없이, 「새로운 열심, 마음가짐」,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의 「새로운 복음 선교」에, 「환혈류」의 정신으로 살아 갑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마르치 리오의 권유)입니다. 우리도 「현대의 순교」를 용감하게 살고, 다음 세대의 일본 교회에 「환혈류」의 마음을 계승해 나갑시다.

금년도 교오토 교구의 복음 선교의 걸음을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의해서 아버지인 하느님에게 바쳐,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님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계속합시다.

2008년 1월 1일 하느님의 성모성마리아의 축일

(주 1) 베네딕도 16 세교황은, 2007년 6월 28일, 성베드로·바오로의 축일의 전날 기원의 설교로 발표되었다. 덧붙여 성바오로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원 7년부터 10년사이로 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